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류청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학자와 함께 하는 인생 이모작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성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프트
스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스킬 하면

어떤 이들은 이거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스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간단하게

정의를 드린다면 소프트 스킬은 인간과 인간 간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심리 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할 때 어떤

소프트 스킬을 내가 좀 갖추면 좋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연구되는 소프트 스킬과 스킬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

우리 인류 문명사가 운영하는 또는 활용하는 소프트
스킬들이 대략 한 **4400**여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인이 평생을 통해서 사용하는 스킬들이
약 **13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너무 많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나한테 약점이고 어떤 것이
강점인가, 또 그리고 어떤 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스킬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니까 스킬에는 하드 스킬도 있고 소프트 스킬도

있는데 소프트 스킬만을 약 **400**개로 정리해놓은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그 **400**개 정도를 약 **80**개로 압축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400**개는 좀 많은 거 같고, 그래서

약 **80**개에 가까운 소프트 스킬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적 역량을 활용해서 **13**개로 압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압축된 **13**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13**개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게 나오는 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확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주어진

일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한다라는 개념이죠.
이처럼 각각의 구체적인 설명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놓았는데요. 이거를 다 시간관계상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열정적인, 독립적인, 문제해결을 잘하는, 유연한,

통찰력 있는, 표현이 적극적인, 이타적인, 리더십이 강한,
믿음직한, 개척적인, 창조적인, 협력적인의 **13**개입니다.

아마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13**가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자기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문에서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되면 **5점**을

부여하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4점**, 그저 그렇고 보통인
거 같다 나는, 그러면 **3점**.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2점,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생각되면 **1점**으로 한번
점수를 부여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3개**의

소프트 스킬에 대한 자기 질문의 결과를 총점을
합산했을 때 그 점수가 **44점** 이하가 될 경우에

아, 내가 좀 약한 소프트 스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소프트 스킬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 **45~47점** 정도 되면 다소
낮다. 그리고 **48~52점** 정도가 되면 보통 수준이구나

이렇게 판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56점 정도가 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나는 미래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포괄적으로 소프트 스킬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겠고요. **57** 이상이 되면

소프트 스킬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종합 점수가 **47점** 이하가

된다고 판단되면 아,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기 전에 우선 약점의 소프트 스킬을 찾아서

이거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13개**의

소프트 스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미래에 인류가

추구해야 될 덕목들과 관련된 소프트 스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서는

Altruism이라는 이타심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심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 최상위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적 분석을 해보니 **79개**의 소프트 스킬

중에서 이타심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8개가 추출이 되더군요. 첫 번째는 **Supportive**라는

힘이 되어주는 자, 설명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타심과 관련된 문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잘
도와주는 편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줄 테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런
쪽인가, 그렇지 않은 쪽인가.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잘 헤아리는 편이다. 세 번째 어려움이나 위협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는 편이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을 잘 전달하는

편이다. 다섯 번째 옳고 그름을 차분하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나는 행동한다. 여섯 번째 말과 행동이
어른스럽다는, 듬직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일곱 번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든다. 여덟 번째 감정 표현이나 반응이

비교적 빠른 편이다. 이렇게 8가지 소프트 스킬이
이타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지금 보다는 이러한
이타심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되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8개의 문장을 참고해서 자기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실천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짧은 시간에 이타심을 강화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홍익인간이나 이타심 하면 개념이 너무나 크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감히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서 최고의 이념으로 설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학습의 1차 시차에 녹여 넣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뜻이 크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8개로 세분화해서 소프트 스킬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홍익인간을 좀 더 쉽게

개념화해볼 수는 없을까 해서 제가 한번 공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나쁜 사람'이라는 단어는 나쁜인 사람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죠. 나쁜인 사람, 그거를 한자로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인간적이기보다는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강하거나 앞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 생각한다. 그래서 나쁜인 사람을 우리는 보통

나쁜 사람, 나쁜 사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주
이타심이나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이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쁜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쁜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언어학자는
아닙니다만, 한번 만들어왔습니다. 나쁜인 사람과

어감이 비슷하면서 나쁜 사람처럼 네 음절로
끝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본 게

나눌 사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의 반대말을 나눌 사람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기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면 이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나쁜 사람이란 상당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표현하는 거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이타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쁜 사람과 나눌 사람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내 이타심을 높이는 활용 방안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쁜인 사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볼까? 작은 실천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어진 여건에서 작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우리 사회는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경쟁과 협력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참 막연한 말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 하지만 우리 몸이 그거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하고,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바로 질병의 출발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꼭 오른손을 쓰지 않아도 될 행동까지도

오른손만 합니다. 왼손은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의식적인 습관 자체가 우리의 밸런스를

깎 수도 있습니다. 은연중에 화장실에 갈 때 문을 열 때도 오른손으로 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을

집을 때도 오른손이 먼저 갑니다. 한번 우리가 역발상으로 정말로 꼭 오른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물건도 왼손으로 먼저 집은 다음에 오른손한테 전달한다든가 이와 같은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나의 생활습관과 마음이 밸런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마 이 경쟁과 협력이라는 밸런스

맞추는 데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등과 다름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 중의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그런 외국인들의 부러운 시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적어도 한 달 이상

살아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등과 다름 부분이 너무나도
혼탁해 있다는 거죠, 우리사회가. 그래서 자기가

유리할 때는 평등을 주장하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되면 다름을 강조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려고 하는

이상한 심리도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숙한 의식인들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평등과 다름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이타심을

강화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프트 스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생 이모작
창업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